

대림 제3주일

기도서 218면

제1독서: 스 바 3,14-18a
제2독서: 필 립 4,4-7
복 음: 루 가 3,10-18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출판처: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2

□ 강론



공기 인간

박성팔 신부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 병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제 가치관들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고집할 수만은 없는 시대에, 그 다양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인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기인간이 되어야 한다. 공기처럼 가볍고 어떠한 곳에서도 틀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인간. 그러면서도 공기처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모든 굴욕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견디어 내는 그러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세례자 요한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2천년 전 인류 구원을 위해 가난, 고통, 사랑으로 자신을 철저히 비운 주님의 탄생을 고대하는 우리에게, 또 마지막날 영광스럽게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외칠까?

“이 쪽정이 인간들아! 너희는 하느님을 믿는다면서 바리사이와 사람들처럼 율법과 형식을 제일로 삼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소유, 명예, 권력, 자존심, 쾌락 등의 손익을 계산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탄생을 재현하고, 마지막날 주님 오심에 땀땀이 나아갈 수 있겠느냐? 정신차려라! 그리고 배게 건네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제도적인 구조약,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불우한 이웃 등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철저히 자신을 비우며, 어디에든 뚫고 들어가 생명을 주는 공기처럼 주님의 말씀을 살아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속으로만 갖기 갖기 찢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행실을 보여라. 속웃 두 벌이 있는 사람은 없는 이에게 나누어 주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누어 먹어야 한다. 하느님을 믿는 너희들은 어떠한 처지에 있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부담이 없고, 생명을 주는 공기처럼 너희도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에도 무너질수 없는, 세말의 심판관인 그리스도께서 시비를 가려 줄 것이다” 하고 외칠 것이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강생을 우리 마음에 재현시키고, 마지막날 영광스럽게 오실 주님께 땀땀이 나아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자신을 정직히 뒤돌아 보고, 현재와 미래에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자.

(노송 전주교회 보좌신부)



버스표 한 장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을 가졌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에 봉사한다. 그런가 하면, 극악무도한 사람이라서 이 사회에 해독만을 끼친다 하더라도, 그 행동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경종을 울림으로써 교훈을 주기도 한다. 결국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주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한 일은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불편을 느끼는 일들이 많아진다. 전방울 지키는 군인들의 입무도 더 힘이 들고,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의 일거리도 더욱 심란하다. 그 일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고, 먹고 살아가는 직업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는 하지만 어려움이 커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지만, 우리 서로가 조금씩 나누어 맡을 수는 있다. 여기에 사람이 살아가는 맛과 멋이 든다. 김장 쓰레기는 공터에 묻어주고, 여가를 선물해서 돈 장갑으로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이 그 하나이다.

보잘것 없는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은 때를 가리지 않아야 하지만, 성탄절을 앞두고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형제들은 많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서 마음뿐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가진 것이 있다.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가 더 중요할 뿐이다.

어느 학생들 연수회의 미사 헌금 바구니에 버스표가 한 장 있었다. 어쩌면 그 학생은 걸어서 갔는지도 모른다. 추측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하나는 그 학생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다. 하느님계의 봉헌처럼, 보잘 것 없는 형제에게도 버스표 한 장을 줄 수 있는 사랑이 아쉬운 계절이다.

숲 정 이 산책



군중신부님을 도움시다

인권 주일에 즈음한

— 주교단 담화문 (2) —

현실적인 문제들

11. 사회의 질서, 제도, 윤리, 법률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그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의 권리와 그 존엄성을 외면한 채 무분별한 피임, 불임수술, 인공유산을 조장해 온 공권력의 남용은 단호하게 배척되어야 합니다. 낙태행위 등 인명 경시의 풍조가 만연되는 사회는 노약자와 장애인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신앙인은 물론 모든 선의의 사람들은 국가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여하한 상황 하에서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해야 합니다.

12. 법은 형벌이 두려워 지켜져야 한다기 보다는 인간의 양심에 따라 준수되어야 합니다. 법은 인간의 양심과 인격을 존중할 때 비로소 존중될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와 같은 양심에 반하는 법의 존재를 반대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천부적 인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법의 제정과 운용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13. 모든 사람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될 수 없으며, 여론재판 등에 의하여 사전에 단죄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고문의 완전한 철폐와 근절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4. 형사피고인은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며, 수감중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죄명에 따라 인간에 대한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되며, 정당한 급식과 건강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접견과 통신과 독서 등 행형조건의 개선을 통한 수형생활의 인간화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15.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지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유신시대에 긴급조치와 반공법이 정치보복과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를 지켜보아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의 무차별적인 적용과 처단으로 국가사범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혼동을 가져오게 하고 관계 공산주의자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신앙공동체 활동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 단체 구성죄로 처벌되는 사례를 보고,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 당국의 그릇된 오해와 편견으로 하여 후심한 탄압

의 위협 아래 놓여 있는 가톨릭 노동청년회와 가톨릭 농민회의 활동에 대하여, 깊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인간의 지극히 고귀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들 단체는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의가 공식 인준한 단체임을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

17. 인간의 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명령에 의하여 정의와 진실을 외치다가 감옥에 갇힌 바 되었거나 자신의 일터와 배움터에서 추방당한 모든 사람들의 석방과 복직과 복학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광주사태 관련자, 5.17 사태와 관련된 정치범,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수의 양심범들의 석방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18. 전체 근로자의 50%가 1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외치다가 고통중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살핌과 기도를 계속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의 위협 앞에 놓여진 많은 수의 근로자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위로를 전합니다.

19.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사제로서의 양심에 따른 행동으로 인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감중에 있는 최 기식 신부와 그 관련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1심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고 상소중에 있는 관련 피고인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 이 땅에서의 인권의 향상을 위하여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탐구하여 노력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감히 정의에 관해 얘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그 자신이 다른 사람의 눈에 정의로와야 합니다.¹⁰⁾ 우리는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함에 있어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눈에 스스로 정의로운지 깊이 반성합니다.

21. 우리 교회는 인권과 사회 정의에 있어서도 희망의 표적과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를 꼭 해하고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교회에 도전하고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관대하고 동정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정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실천합니다.

주(註)

10) 「세계 정의에 관하여」 9항.

독일제 치질약
에이널 좌약 입하
사마귀 제거약
베루말 재입하
시민약국
4-0009·3-3338
약사 김병익(마벨로)

고급 양복은
중앙양복점
교우분께 활인 봉사합니다
중앙동 전주백화점 앞
전화 ④ 4446
안종기(베난시오)

☐ 마춤·대여
웨딩드레스·약혼복·연주복·파티복·패션의상·부케 및 꽃다발·신부화장·아기드레스 전화 ⑥ 6951

신부의 집 정인기(논지도)

서 울
☐신탁은행
등서관통도로
우체국 ◆신부의집

팔달로



□ 1983년도 가톨릭 교리(예비 신자) 강좌

“나는 목마른 땅에 물을 부어주고 메마른 곳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리라.”(이사야44, 3)

- ※ 가톨릭 교회(천주교)에 입교하기를 희망하는 분을 모집합니다.
- ※ 신앙강좌에 참석할 수 없는 분을 위하여 통신교리도 실시합니다.

1. 신청기간 : 1982년 12월 31일까지
2. 신청방법 : 예비신자 등록신청서를 교육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가톨릭 센터 내 교육국에 비치되어 있음)
3. 접수처 : 전주시 서노중동 601 천주교 전주교구청 교육국
4. 개강시간 : 1983년 1월중 개별 통지 해드립니다.

신자들은 가까운 이웃들이 이 교리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것은 교육국 전화 ②0042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 군중, 타교구 주거 사제 주소

오랫만에 멀리 계신 신부님들께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Rev. Callistus Jung(정 태현)
American College
Naamsestraat, 100
B3000 LEUVEN, BELGIUM

Rev. Anthony Yang(양 재철)
C/O KAB-Süddeutschlands
Pettenkofenstr. 8/III
8München, 2, WEST-GERMANY

Rev. Simon Han Pong-Seop(한 봉섭)
Korean Catholic Mission
St. Thomas More Church 624W
Ponc Decatur, Ga 30031 U.S.A.

Rev. Bonaventure Rhee(이 수현)
Koreanische Mission
Jakob-Steffan Strasse-75
D-6500 MAINZ, WEST-GERMANY

Rev. Didier t'Serstevens(지 신부님)
S.A.M. Chaussee de Waterloo, 244
B-1060 BRUXELLES, BELGIUM

Rev. Matthew Kim(김 진석)
Collegio S.Paolo Apostolo
Via Torre Rossa, 40
I-00165 ROMA ITALY

Rev. Benedict Kim(김 병운)
St. Peter's Cathedral
196 Dufferin Ave
LONDON, Ont. N6A 1K8,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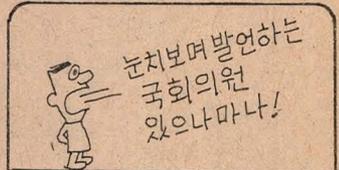
Rev. Gadriel An Yong-Ki(안 용기)
East Asian Pastoral Institute
P.O.Box 1815, Mania PHILIPPINES

Rev. Vincent Ri(이 병호)
M.E.P. 128, Rue du Bac
F-75007 PARIS, FRANCE

Rev. John Cheon(전 종복)
Rev. Joseph Seo(서 광석)
Rev. John Wang(왕 수해)
Collegio San Pietro, Viale
Mura Aurelie4 I-00152 ROMA ITALY

- 151 서울 동작구 상도 2동363-243 가톨릭 군중 신부단 고경훈 신부님
- 171-01 경기도 안양시 우체국 비산동 사서함 1호 중의 천주교회 정승현 신부님
- 300 충남 대전시 유천동 107 군중 사제관 권이복 신부님
- 760-32 해군 7601부대 사령관 사제관 김성진 신부님
- 100-24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전진성당 김희남 신부님
- 130-78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 240 현리 천주교회 유영도 신부님
- 110 서울 종로구 혜화동 90-12 가톨릭 교리 신학원, 200주년 사목회의 사무국 김태훈 신부님
- 100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16호 마스크위원회 나궁열 신부님
- 500 전남 광주시 우체국 사서함 9호 대전신대 박진량, 김동준, 범선배, 이순성 신부님

요심이(488) 김병오



상당수준의 교착본(체르니, 쏘나타) 초화자에게 악보없을 시도 반주 해낼 수 있는 제미크라식 반주법의 회소식

째즈 · 크라식

피아노 반주법

각 분당 전자출판 구입시 상당 및 협조해 드립니다.

성악 : 음대 지망자나 가요계 지망자

전화 ④ 3770

이일규(알로이시오)

※ 구 역전과 전교중간 사거리 전북은행 노송동지점 앞

금·은·보석·시계는

금보장

장(방저거) 채(마리아)
전주 남문열
(대저목욕탕 입구)
전화 6-4989(사구팔구)

- 혼수(회갑) 옷감
- 특수 파티복
- 고급 친구류
- 각종 솜 일제
- 커튼지

도매상

서울주단

☎ ③0453 ⑤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길(안토니오)
박(베로니카)

남녀학생 자유복·

사보네 아동복·신사복
대도의류종합백화점
(구, 금광상회)
(교우 환영)
군산시 명산동 152번지
☎ 2-5530
김광수(라파엘)

결(축)혼

신랑 : 조 정 수(노렌조)
신부 : 원 미 숙(마리아)
일시 : 82. 12. 13. 10 : 30
장소 : 파티마 성당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축! 견진 : 순정이 성당(공식미사 중) 12일
2. 휘폴라레 모임 : 12일, 남자-10시 30분, 여자-2시 30분, 장소-중앙성당
3. 전주교구 교리교사 연합회 정기총회 : 13일 오후 2시, 장소-센타, 참가자각-각 지구 회장단, 각 본당 대표 1명
4. 가톨릭 센타 예비자반 특강(성탄전 세례성사 예정자반) : 13~18일 오후 7시~9시
5. 군중후원회 전방 신부님 위문 : 19일, 희망자 16일까지 교구청 김 정기 사무장님께 회비 납부바람(5천원)
6. 국군장병들을 위한 위문품, 위문금, 위문편지 모집 : 20일까지 교구청 사무실에서 일괄 접수하여 교구 소속 군중신부님들을 통해 교루 전달됩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중앙)

전화 ①7111~3

주임	신부	문정	현호
수석	보좌	한기	홍협
보좌	신부	박인	인협
사도	회장	김인	인협

차주전례 : 해설-김재식, 독서-①김순정 ②이갑진, 기도-김진우

□ 지난주 봉헌금 : 481,265원

(서화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명	현
사도	회장	황인	구

1. 반장님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2. 푸리아 윌레회 : 오늘 오후 2시 회의실
 3. 할머니 모임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4. 성서회 모임 : 13일 오후 2시 성당 회의실
 5. 푸리아 연합친목회 : 14일 오후 7시 본당 강당
 6. 본당 판공 : 1·2·3·4반-15일, 5·6·7·8반-16일, 9·10·11·12반-17일, 13·기타반-18일 ※ 성사시간-오후 3시~저녁 8시까지, 성사포 오후 2시부터 발급
 7. 영세자 특별교리 : 13일~18일, 시간-오후 7시~8시
 8. 교무금 미납하신 분께서는 판공때 완납바랍니다
 9.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차상열 ②김한기
- 지난주 봉헌금 : 195,625원 교무금 : 317,000원

(술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②9567 사도 회장 김수걸

1. 견진성사 : 오늘 공식미사 중
 2. 판공성사 시간 : 오후 2시~6시, 13일-진복1등·배평동, 15일-금암동·어느골, 16일-서신1구역, 17일-서신2구역, 18일-초·중·고 학생 ※ 성령제미나 때 성사보신 분은 성사포 사무실에 영세 할고 : 23일 오후 2시(대부모 미리 정하세요)
 3. 영세 할고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4. 성가연습 : 성가대원 매일 오후 2시 참석 바람
 5. 성령기도회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6. 술정이 유치원 ☎ ③9567 : 원아들을 모집합니다
 7. 금주전례 : 해설-정주복, 독서-장삼·강원모
기도-이강노
기도-김수걸·이은자
- 차주전례 : 해설-정주복, 독서-송용호·백시현
기도-김수걸·이은자
- ※ 신부님 방문을 받지 못한 신자는 교적 정리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 413,180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병엽
전화 사무 ③3222 보좌 신부 박병준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이송두

1. 자모회·장우회 : 공식미사 후
 2. 설마리아 푸리아 : 오늘 오후 2시
 3. 성화회·포미시움 : 다음주
 4. 미사시간 변경 : 주일 : 첫미사-6시, 중·고생 미사-9시, 공식미사-10시, 아동미사-오후 3시, 저녁미사-7시, 평일 : 아침미사-6시, 저녁미사-6시 30분
 5.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기간-12일~19일
 6. 학생회 회장단 추천 : 83년 1월 2일까지
 7. 성령기도회 : 매주(월) 오후 7시, 강당
 9.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종구, 독서-①김동원 ②최정식
공식미사 : 해설-서정옥, 독서-①안득수 ②백종훈
저녁미사 : 해설-정양수, 독서-①정동희 ②이승호
- 지난주 봉헌금 : 502,205원 교무금 : 531,000원

(파티마)

신부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수녀 ②4804 사도 회장 황희상

1. 본당 판공 : 12일 법석구, 김진소 신부님 수고합니다. 교배성사표를 꼭 지참하세요
 2. 연합교사 수협성(중3)을 위한 미사 : 14일 저녁미사
 3. 다음주 가을판공 : 마지막 판공입니다. 성신부님, 유신부님 수고해 주십시오
 4. 유치원 원아모집 : 월서-13일까지, 사무실
 5. 83년도 교무금(봉헌금) 신일 : 감사하는 뜻에서
- 지난주 봉헌금 : 217,425원 교무금 : 256,000원

◎ 성경읽기 : 마태복음 10장~20장

1. 푸리아 윌레회 : 오후 2시
 2. M.B.W. 수료자 : 18일 저녁미사 후, 2층 교리실
 3. 판공 못보신 분 : 17일 어머니미사 후에(저녁시간 없음) 21~22일 보세요, 오전 10~12시, 오후 7~10시
 4. 남·여 전체 전모임 : 오후 2시 30분 중앙성당
 5. 신축현금 수입 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익명·오중순·권의연(2만원), 박영래·하순옥·백순이·이금순·송철·양옥자(각 5만원), 강금순(1만원), 익명·두선희(각 10만원), 박남순(20만), 이홍선(1만5천원) 신축현금 총계 : 109,871,000원
- 지난주 봉헌금 : 705225원 교무금 : 4,768,100원

(노송동)

신부 ②0969
수·사 ②7032

주임	신부	김웅	태
보좌	신부	박성	팔
사도	회장	이홍	재

1. 사도회 윌레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혈제회 유기 및 중신서약 : 19일 공식미사 중에
 3. 예비자 특별교리 : 13일~18일까지(매일 저녁 7시)
 4. 가족대할 성가경연대회 : 접수마감 19일까지
 5. 병자방문 및 판공 : 14일 오후 2시(병자 가정 신청)
 6. 성화 상영 : 17일 저녁 7시(제목-성프란체스코)
 7. 미사시간 임시변경 : 16일 아파트와 17일 본당의 오후 4시 미사가 없음(17일 본당 저녁미사 있음)
 8. 교무금을 속히 완납 : 부담없는 마음으로 성탄을~
 9. 각 분과위원장 명단 : 다음주 발표
 10. 축! 예배미사 : 오늘 12시 30분, 신랑-김베드로, 신부-이아베스
- 지난주 봉헌금 : 본당-315,150원, 아파트-42,370원
□ 지난주 교무금 : 본당-324,000원, 아파트-39,00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김봉	희
보좌	신부	안철	윤
사도	회장	양상	열

1. 영세 예비자 특강 및 면접
① 특별교리 13~14일 오후 2시·저녁 8시 사제관
② 면접 15~17일 오후 2시·저녁 8시 사제관
15일 학생(중·고·대), 16일 부녀및 일반, 17일 직장인
 2. 사도의 모후 Pr 창단 : 오늘 공식미사 후 사제관 2층
 3. 성탄절 성금 섬김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금일 사랑에 봉투 배부, 20일까지 헌납 바람
 4. 푸리아 윌레회 : 19일 오후 2시, 각 Pr팀 간부 참석
 5. 성사 못보신 분들께 알림 : 매일 저녁 평일미사 후
 6. 유아 영세자 : 23일 오후 1시까지 접수
 7. 환자 모시고 계시는 분 오늘까지 신청, 13일 방문
- 지난주 봉헌금 : 527,580원

(복자)

전화 ③5238번

주임	신부	권영	균
보좌	신부	조성	호
사도	회장	조성	호

1. 성탄 판공성사 : 15일-다가동·중앙동·고사동, 16일-배평동·완산동·화산동, 17일-진북동·기타, 18일-학생·직장인, 오전 10시~12시 오후 3시~5시
2. 15일 새벽미사 없고 저녁 7시 미사(연합교사 응시자를 위한) : 학생들 많은 참석 바람
3. 루시아 성녀축일 : 12일 13일
4. 어머니 성가대 성가연습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5. 성우회 : 오늘 없었습니다. 성탄 자시미사 후
6. 영세식 : 24일 오후 2시, 대부모와 같이 준비 바람
7. 성탄 가정 활동 감사미사 : 성탄 자시미사
8. 금주전례 : 해설-김인식, 독서-①김성원 ②임중윤, 기도-강기연